

전기전자

삼성전자는 왜 팬택 지분을 인수한 것일까?

2013. 5. 23

전기전자
Analyst 김현용, CFA
02.3779-8955
hyunyong.kim@etrade.co.kr

주요 거래선 지원을 통한 사업적 시너지 창출기회로 활용할 전망

팬택은 5월 22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3자배정 증자를 결의하고 삼성전자에 신주 5,300만주를 발행키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쉐어(11.96%), 산업은행(11.81%)에 이어 지분을 10.03%로 팬택의 3대주주가 되었다.

사업적 시너지와 후발주자 견제목적이 공존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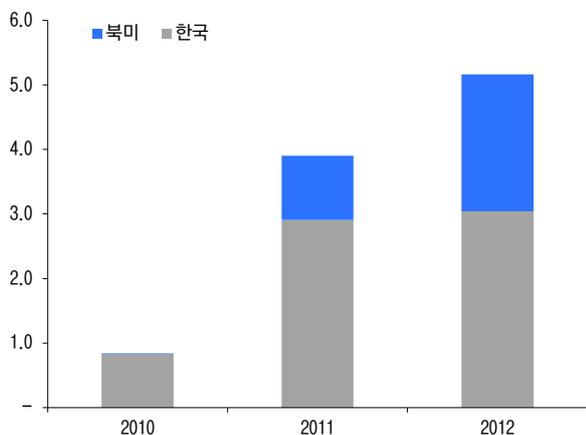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한 삼성전자가 1%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팬택의 지분 10%를 인수하였다. 이번 인수가 스마트폰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 다만, 1위 사업자의 지분투자이기에 그 배경에 대해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수에 대해 고객사를 지원함으로써 삼성전자 부품사업의 매출액 감소를 막고 향후 팬택의 턴어라운드를 통한 이익증가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팬택향 부품판매가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를 주목적으로 인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팬택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들(삼성전기, 삼성SDI)로부터 메모리, 디스플레이, PCB,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을 공급받고 있다. '12년 삼성에서 구매한 부품가액은 2,353억원으로 삼성전자 부품사업 매출액 68.3조원의 0.34%에 불과하다.

결국, 다른 이유로 삼성전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원적인 배경은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하나는 팬택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로 특허 및 연구개발에서의 사업적 시너지를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팬택의 쇠락으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후발주자들을 견제하는 것이다. 팬택은 '12년 5백만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한 것으로 파악되고 60%가 한국, 40%가 북미지역이며, M/S는 각각 15%, 1.5%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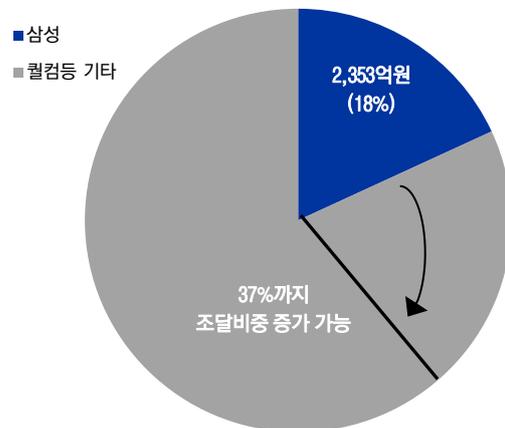
3자배정 증자를 결의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이자 유의미한 지분을 보유한 유일한 전략적 투자자인 쉐어 및 2대주주인 산업은행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예상보다 큰 사업적 시너지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은행을 비롯한 재무적투자자 지분을 추가 인수하여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율을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림1] 팬택 스마트폰 출하량 (백만대)



자료: 업계자료,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팬택의 부품조달 삼성 의존도 (2012년 기준)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현용)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종목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

업종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

2012년 5월 14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Buy/ Hold/ Sell)에서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로 변경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